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전 규제 환경 조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 난해 우리는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수평적 정권 교체이며, 다른 하나는 총체적 경제 위기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혹심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구조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시작된 이 변화의 물결은 정부 기구 개편으로부터 시작하여 공공 기관, 금융 기관 및 대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으로 이어졌고, 조직·인력·예산의 축소와 같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96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경영 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 지난해에는 조직을 전면 재편하였고, 인원을 대폭 감축하였으며, 인사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업무 수행 절차를 정비하는 등 업무 체계를 개선하였다.

특히 경영 혁신 과정에 외부 경영 평가 전문 기관의 자문을 활용함으로써 변화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직원의 참여도와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다.

새해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이러한 구조 조정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러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적극 수용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안전 규제 환경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사업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규제 대상도 다양화될 것이다.

2010년의 전력 소비량은 지금보

다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발전원의 다변화를 위해 원자력 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14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으나 2010년까지 총 26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또한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진척과 원자력 산업의 해외 진출도 가시화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의 안전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의 국제 규범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96년 10월에 발효된 원자력 안전협약과 작년 9월에 각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 방사성폐기물관리안전협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중심으로 한 「세계고위규제자협의체」가 결성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일본·인도 등을 중심으로 국가간 환경 방사능 공동 감시망의 구축이 논의되고 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국내의 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정진함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규제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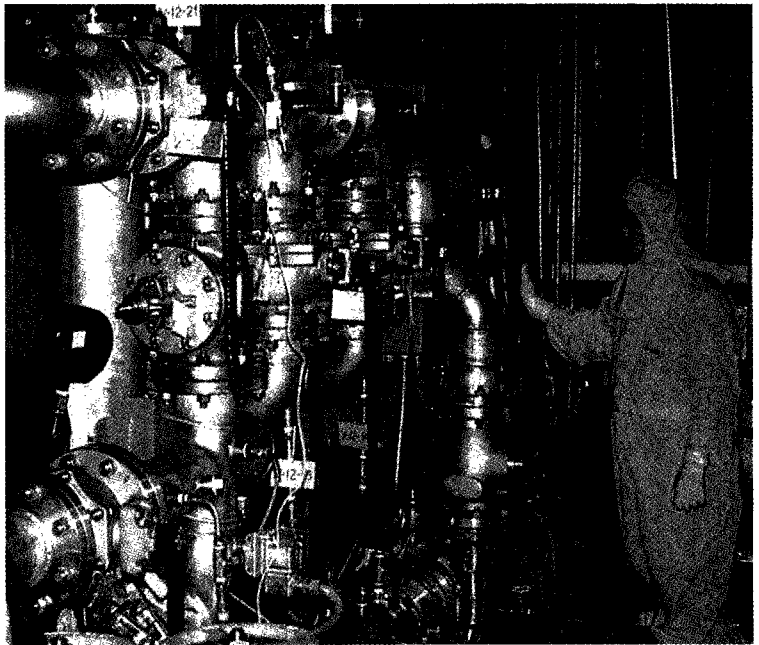
건설중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

금년에는 울진 4호기 및 월성 4호기의 운영 허가 심사와 영광 5·6호기, 울진 4·5·6호기 및 월성 4호기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족 인력을 보완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규제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 심사 자료를 전산화하고 심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미래 규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차세대 원자로 등 개량형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 방안을 수립하고,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에 대비한 안전 규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울진 4호기와 월성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안전 규제 대상은 가동중인 원전 16개 호기와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 시설 등 모두 21개 시설이다. 금년에는 이 중 고리 1호기 등 13개 원전에 대한 정기 검사를 비롯하여 연구용 원자로 및 핵주기 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그리고 핵연료에 대해 안전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가동중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

울진 4호기와 월성 4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안전 규제 대상은 가동중인 원전 16개 호기와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 시설 등 모두 21개 시설이다.

금년에는 이 중 고리 1호기 등 13개 원전에 대한 정기 검사를 비롯하여 연구용 원자로 및 핵주기 시설 등 5개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그리고 핵연료에 대해 안전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특히 고리 원전 등 원전

의 노후화에 따른 취약 예상 부분에 대한 감시·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며, 원전의 사고·고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활성화하고,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개발한 원전 성능 지표를 시범 적용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코자 하며, 원전 비상 운전 절차서의 개선 작업을 수행하여 사업자의 개선 노력 및 방향을 유도하고자 한다.

방사선 안전

새해에는 원자력 시설 주변 4개소, 환경방사능측정소 11개소 및 간

이측정소 2개소 등 모두 17개소로 구성된 환경 방사선 감시망을 충실히 운영·관리하고, 인터넷망을 통하여 측정치를 일반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여 환경 방사능 감시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환경 방사선 감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측정 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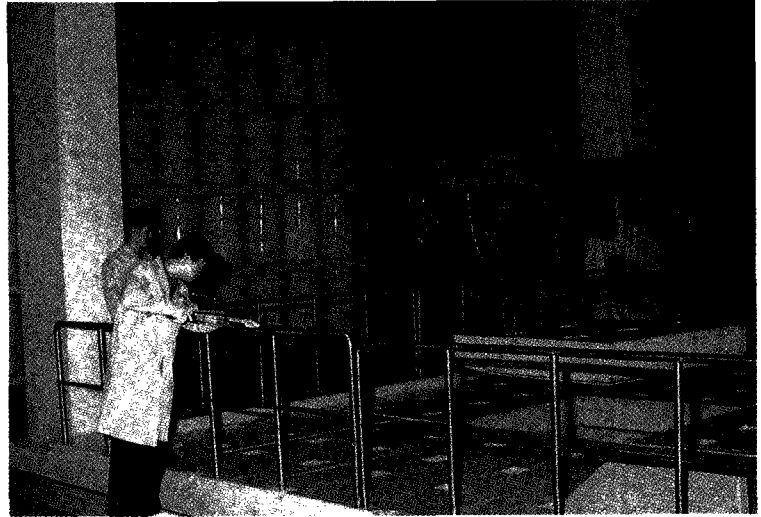
지난해에 도입한 국제방사선방호 위원회의 신권고 내용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도 1,400여개의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 안전 규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새해에는 단순한 규제 활동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라 선택적·차등적 심층 규제를 수행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안전 규제 연구

새해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중장기 계획에 따라 2개 대과제 밑의 1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안전 규제 연구는 안전 규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활용성이 큰 과제를 우선하여 수행코자 하며, 외국 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확대 추진코자 한다.

92년에 착수한 차세대 원자로 안전 규제 기술 개발은 새해부터 3년간 계속되는 3단계 사업에 착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새해에도 원자력안전규제 중장기계획에 따라 2개 대과제 밑의 1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안전 규제 연구는 안전 규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활용성이 큰 과제를 우선하여 수행코자 하며,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확대 추진코자 한다.

일반 안전 요건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차세대 원자로의 인허가 절차 제도 등을 개선하여 법제화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 신뢰 제고

원자력 안전 규제의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규제 행정을 펴코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규제의 필요성과 그 활동 내용을 홍보하고 규제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경영 혁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규제 업

무와 관련된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 규제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나가코자 한다.

이를 위해 연봉제 도입, 인사 고과 제도의 개선 등 보상 체계의 합리화, 그리고 업무 수행 체계의 개선 등 근본적인 구조 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한다. ☸